

신 67 웨마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편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하루 되세요.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어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로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목표를 세우고 실행한 일 중 가장 좋은 성과를 이룬 건 무엇인가요?	불의한 계획을 멀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선하신 목자(은혜의 찬양 70장)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 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내 영혼의 목자 내 삶을 맡기니 주 인도 따라서 어디든 가리 난 선택했네 주 음성 듣기로 주 인도 따라서 나가리 나를 푸른 초장과 실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 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내 영혼의 목자 내 삶을 맡기니 주 인도 따라서 어디든 가리 난 선택했네 주 음성 듣기로 주 인도 따라서 나가리 조용한 풀밭이든 잔잔한 물가든 내 영혼의 목자 내 곁에 있네 험한 산을 만날 때나 깊은 골짜기에서든 내 영혼의 목자 날 이끄시네
--	---



2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찬송가 290장)

- 1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 2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 3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 [후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말씀 읽기 사무엘하 15:1-12

- 1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오십 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 2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 3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 4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 5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 6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 7 사 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 8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 9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 10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 11 그 때 청함을 받은 이백 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 12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본문 배경

압살롬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들에게 둘러싸여 다녔습니다. 이는 자신을 차기 왕으로 보이도록 교묘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매일 아침 성문 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재판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불만을 자극하며 자신이 재판관으로 임명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자신의 편에 서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찾아가 예배를 드리러 헤브론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도시였고, 이스라엘의 성읍들 가운데 다윗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도시였기에 그곳에서 반역을 일으키고자 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준비한 계획에 따라 민첩하게 행동했습니다. 200명을 초대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압살롬의 음모를 알지 못한 이들은 난처했지만 공개적으로 압살롬을 거역하면 생명이 위험했기에 반역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왕

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따르는 세력이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음에도 압살롬은 자기 뜻대로 행하며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일을 꾸몄습니다. 이는 다윗 왕에게 반역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 관찰

1 압살롬이 성문 곁에 서서 재판을 청하러 오는 백성의 민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6절)

답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함입니다.

해설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외적으로도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50명의 호위병을 이끌고 다녔습니다(1절). 이런 모습은 자신이 왕의 후계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의 민원을 들었습니다(2절). 압살롬은 백성의 송사를 자신이 다윗 대신 처리하며 철저히 계산된 말과 행동으로 백성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6b절).

2 압살롬은 다윗에게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해 놓고 무엇을 했나요? (10-12절)

답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해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킬 장소로 헤브론을 정했습니다. 다윗에게 헤브론에서 제사 드릴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정탐꾼을 세워 이스라엘 곳곳에 보내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게 했습니다(10절). 압살롬은 여세를 몰아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압살롬을 따라간 200명을 반역에 가담시켰습니다(11절). 또 다윗에게 불만을 가진 아히도벨을 자기편으로 만들었습니다(12절). 압살롬은 강성해 보였고 반면 다윗은 궁지에 몰린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 적용

1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아서 거룩한 왕따(왕을 따르는 사람)가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가족과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 암송

7-2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로마서 13장 14절

유라혜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는 동참하지 않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불의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